



한국 고대의 신화 읽기, 생태환경사상사 연구를 위한 모색 - 단군신화와 金現感虎설화를 중심으로 -

Myth of Ancient Korea and Intellectual History of Ecology

저자 (Authors) 이정빈
Lee, Jeong-bin

출처 (Source) [생태환경과역사](#) , (5), 2019.12, 105-122 (18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생태환경사학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25192>

APA Style 이정빈 (2019). 한국 고대의 신화 읽기, 생태환경사상사 연구를 위한 모색 - 단군신화와 金現感虎설화를 중심으로 -. 생태환경과역사, (5), 105-12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21 14:2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 고대의 신화 읽기, 생태환경사상사 연구를 위한 모색*

- 단군신화와 金現感虎설화를 중심으로 -

이 정 빈**

머리말: 근대주의를 넘어서

1. 단군신화의 비대칭적 세계관
2. 金現感虎설화와 대칭성의 흔적
3. 권력의 신화로, 대칭성의 붕괴

맺음말: 생태환경사상사를 위하여

머리말: 근대주의를 넘어서

근대 학문은 이성에 기초한 과학을 추구했다. 신화에 대한 본격적

* 이 글은 이정빈, 2016, 「단군신화의 비대칭적 세계관과 고조선의 왕권」, 『인문학연구』 31,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을 바탕으로 그 시각을 소개하고 논의를 보완한 것이다. 업구업적 등에서 중복 사용의 목적이 없음을 밝힌다.

** 충북대 역사교육과 조교수. E-mail : kostory@chungbuk.ac.kr

대표 논저 : 2019, 「양맥·숙신의 난(難), 변경에서 본3세기 후반 동아시아와 고구려」, 『한국사연구』 187; 2019, 『한중관계사상의 교역과 교통로』, 주류성 (공저); 2018, 『고구려-수 전쟁-변경 요서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大戰』, 주류성.

인 연구는 그로부터 시작되었다. 18세기 신화학의 태동이었다. 그런데 이성에 기초한 근대 학문에서 신화는 원시·고대사회의 ‘미개사고’로 간주되었고, 근대의 이성 내지 합리의 대척점에서 그를 향해 진보해 간 것으로 이해되었다. 과거 사실의 재현과 이를 위한 객관적 연구방법을 추구한 근대 역사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신화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역사 연구의 대상에서 배제된 경향이 있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 역사학의 학문체제를 수립한 일본도 역사와 신화를 철저히 구분하고자 하였다. 근대 일본의 동양사학은 『일본서기』의 신화, 이른바 신대사(神代史)를 역사에서 분리했다. 신대사는 후대의 정치권력이 만들어 낸 정치서사였다고 파악하였다.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와 쓰다 소우키치(津田左右吉)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들이 한국의 신화를 인정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단군신화의 경우 고려시기에 가공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런데 일본 역사학계의 단군신화 연구가 ‘과학적’이지만은 않았다. 예컨대 쓰다 소우키치의 신대사 연구는 고대 일본의 사상과 민족의 기원을 탐구하는 데로 이어진 반면,³⁾ 단군신화 사료비판은 고

-
- 1) 신화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는 大林太郎 著, 兒玉仁夫·權泰孝 譯, 1995, 『神話學入門』, 새문사, 13-49쪽 ; 김현자, 2004, 「역사의 지평 위로 부상한 신화」 『신화, 신들의 역사 인간의 이미지』, 책세상, 참조..
 - 2) 白鳥庫吉, 1894,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 學習院大學 ; 小田省吾, 1924, 「第四章 高句麗族의興起 附節: 檀君傳說に就て」, 『朝鮮史講座 一般史: 朝鮮上世史』, 朝鮮教育會 ; 今西龍, 1929, 「檀君考」, 『青邱說叢』 卷1이 대표적이다. 이상의 논문은 신종원 엮음, 2009,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에 번역·수록되었다.
 - 3) 박현숙, 2009, 「津田左右吉의 단일민족설과 고대 한·일 민족관계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6, 11~20쪽 및 나가하라 게이 지음, 하종문 옮김,

조선의 역사를 부정·축소하는 데 활용되었고, 이러한 시각은 한국사의 타율성을 부조하였다. 비단 단군신화만 아니라 삼국과 가야 등 고대 여러 나라의 신화도 마찬가지였다. 미시나 쇼에이(三品彰英)의 경우 한국 고대의 신화를 일본의 신화와 비교하였는데, 원시성을 부각했다. 한국사의 정체성을 전제한 연구였다.⁴⁾ 근대 일본의 동양사학은 엄밀한 실증과 과학적인 연구를 표방했지만, 현실의 제국주의·식민주의에 속박되었고 한편으로 부응했다.

단군신화를 주목한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은 한국의 민족주의 역사학이었다. 19세기 후반 이후 한국의 민족주의에서 단군의 의미는 각별했다. 단군에서부터 민족의 기원과 형성을 찾아 일계(一系)의 한국사 체계를 수립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신채호에서 시작된 민족주의 역사학의 지향이었다.⁵⁾ 단군은 민족의식의 원천이었다. 그런 만큼 민족주의 역사학에서 단군신화는 신화일 수 없었다. 신화가 아닌 역사로 평가함은 물론이었고,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신앙적인 서술이 나타나기도 했다.⁶⁾ 해방 이후 나타난 각종 위서(僞書)와 국수주의적 유사 역사학의 기원이었다. 일제시기 민족주의 역사학과 그의 단군신화 연구는 반제국주의 투쟁의 일환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과학적인’ 연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구학계의 신화 연구는 20세기 중반 이후 크게 진척되었다. 다양

2011,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삼천리, 80-83쪽 참조.

- 4) 이정빈, 2009, 「미시나 쇼에이의 문화경역 연구와 만선사 인식」, 조인성 외,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 5) 앙드레 슈미드 지음, 정여울 옮김, 2007,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휴머니스트, 419-436쪽.
- 6) 정영훈, 「단군의 민족주의적 의미」, 노태돈 외, 2000,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189-192쪽 ; 조인성, 2000, 「단군에 관한 여러 성격의 기록」 『한국사 시민강좌』 27, 49-52쪽.

한 분야의 학문에서 신화의 구조와 기능이 탐색되었고, 역사적 성격과 의미가 논의되었다. 구조주의와 기능주의였다. 그러한 가운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근대를 반성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 역사학이 대두했다. 20세기를 통해 이성과 합리를 표방한 서구 문명의 야만성이 폭로되었고, 서구 중심의 근대 문명으로서의 진보가 회의되었다. 근대주의를 넘기 위한 시도가 다방면에서 펼쳐졌다. 미개사유로 간주되어 온 신화의 의미와 가치도 재평가되었다.

비단 서구학계만 아니라 한국학계의 신화 연구 또한 그 수준이 높아졌다.⁷⁾ 서구의 연구방법을 수용하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신화를 폭넓게 비교했다. 이를 통해 고대의 여러 신화에 후대의 윤색이 있지만, 고대사회의 신화였음을 밝혀냈고, 나아가 다수의 건국신화가 고대국가의 정치이데올로기로서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이제 한국 고대의 신화에 담긴 신화적 사유·세계관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사를 염두에 두고, 한국 고대 신화의 세계관을 주목해 보고자 한다. 비록 시론이지만 생태환경사상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7) 단군신화의 경우 다음과 같은 연구가 주목된다. 서영대, 2000, 「단군신화의 의미와 기능」, 노태돈 편, 2000, 앞의 책 ; 서영대, 2001, 「단군신화의 역사적 이해」, 『한신인문학연구』 2 ; 송호정, 2002, 『단군, 만들어진 신화』, 산처럼, 123~127쪽. 한국 고대의 신화와 사상 전반에 관해서는 조경철, 2016, 「정신세계와 지배 이데올로기-하늘에서 인간으로, 신화에서 역사로-」, 『한국고대사 2-사회 운영과 국가 지배-』, 푸른역사 참조.

1. 단군신화의 비대칭적 세계관

신화는 그리스어 뮈토스(mythos)에서 유래한 미스(myth) 내지 미솔로지(mythology)의 번역어로, 학문 분야마다 또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지만,⁸⁾ ‘인간과 세계에 대한 신이(神異)한 이야기’라고 보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⁹⁾ 대부분의 신화에서 인간을 둘러싼 가장 밀접한 세계는 자연이었다. 예컨대 그리스·로마 신화의 많은 신은 인격을 갖춘 자연이었다. 그러므로 신화 속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고대인의 세계관을 반영한다고 이해된다. 신화의 세계관에 접근하는 데 신화학의 대칭성·대칭관계 개념이 참고된다.

대칭성·대칭관계란 본래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 Lévi-Strauss)가 구조주의 문화이론을 통해 제시한 개념인데, 나카자와 신이치(中澤新一)가 신화 연구를 진행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교감·소통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¹⁰⁾ 나카자와 신이치에

8) 大林太郎 著, 兒玉仁夫·權泰孝 譯, 1995, 앞의 책, 50-65쪽; 부르스 링컨 지음, 김운성·최화선·홍윤희 옮김, 2009, 『신화 이론화하기-서사, 이데올로기, 학문-』, 이학사 참조.

9) 한국 중세의 문헌에서 고대의 건국신화는 ‘神異’하다고 서술·평가되었다(가령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박혁거세 1년. “六部人以其生神異 推尊之 至是立爲君焉”; 『삼국유사』 권1, 기이1. “叙曰(中略) 然則三國之始祖皆發乎神異”; 『東國李相國集』 권3, 古律詩 東明王篇 并序. “越癸丑四月. 得舊三國史. 見東明王本紀. 其神異之迹. 踰世之所說者(中略) 桓東明之事非以變化神異眩惑衆目 乃實創國之神迹(中略) 河伯曰 王是天帝之子 有何神異” 참조). 이를 참고해 본고에서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神異한 이야기’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의 역사서술을 神異史觀으로 정리한 李基白, 2011, 『韓國史學史論』, 一潮閣이 참고된다.

10) 나카자와 신이치로 지음·김옥희 옮김, 2003, 『꿈에서 왕으로-국가, 그리고 야만의 탄생』, 동아시아; 신태수, 2007, 『대칭적 세계관의 전통과 서사 문

따르면 신화는 원시 수렵·채집사회에서부터 발생하였는데, 당시 인간은 자연과 유대관계를 추구하며 대칭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전형이 장기간 수렵·채집 생활을 영위한 시베리아 제종족의 신화에서 잘 나타난다고 하면서 이를 중시하였다.

시베리아 제종족, 특히 아무르강 유역의 여러 종족은 곰과 호랑이를 자기 집단의 조상이었다고 한 신화를 갖고 있었다.¹¹⁾ 전형적인 토렘이었다. 그들의 신화에서 인간과 곰·호랑이의 경계는 확고하지 않았다. 양자의 소통에도 막힘이 없었다. 곰과 호랑이는 언제나 스스럼없이 인간으로 변할 수 있었다. 가족을 입으면 곰이요 호랑이였다. 인간과 대화하고 교감했으며 혼인했다. 곰과 호랑이는 인간의 친구이자 연인이자 가족이었다.

시베리아에서 곰·호랑이는 숲의 최상위 포식자로, 자연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시베리아 제종족의 신화에서 인간과 곰·호랑이의 소통과 교감은 인간과 자연의 수평적인 대칭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일찍부터 시베리아 제종족의 곰·호랑이 신화는 단군 신화와 비교되었다. 대부분 공통점을 중시하였다. 그런데 차이점도 보인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함께 굴에 살았는데, 항상 神雄(桓雄)에게 변화하여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였다. 이때 神이 영

학』, 새문사 참조.

- 11) 이와 관련한 내용은 大林太郎, 1984, 「朝鮮の檀君神話とツングス族の熊祖神話」, 『東アジア王權神話』, 弘文堂 ; 이정재, 1997, 『동북아의 곰문화와 곰신화』, 민속원, 84-93쪽 ; 이평래 외 지음, 2009, 『동북아의 곰 신화와 중화주의 신화론 비판』, 동북아역사재단 ; 광진석, 2011, 『시베리아 만주 퉁구스족 신화론』, 지식과교양 참조. 특히 제종족의 신화는 광진석, 2009, 『시베리아 만주-퉁구스족 신화』, 제이앤씨에 자세하다.

험한 쑥 한 묶음과 蒜 스무 묶음을 주면서 말하였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햇빛을 백일 동안 보지 않으면 곧 인간의 형상을 얻게 될 것이다.” 곰과 호랑이가 가져다 먹고 21일 동안 금기하니, 곰은 여자의 몸을 얻었지만, 호랑이는 금기하지 못하여 인간의 몸을 얻지 못하였다. 熊女는 더불어 혼인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언제나 壇樹 아래에서 잉태가 있기를 기원하였다. [환]웅이 이에 임시로 [인간으로] 변화하여 그와 혼인하였다.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壇君王儉이라고 이름하였다.¹²⁾ (『삼국유사』 권1, 기이2 고조선)

위 사료는 『삼국유사』에서 『고기(古記)』를 인용해 전하는 단군신화의 일부로,¹³⁾ 단군왕검의 출생에 대한 것이다. 단군신화 속의 곰과 호랑이가 주목된다.

일찍부터 단군신화의 곰과 호랑이는 토렘으로 해석되었다.¹⁴⁾ 아직까지 토렘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을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토렘은 특정한 사회집단의 자연적 상징이자 구분체계이다. 즉 동물·식물과 같은 특정 자연물이 각각의 사회집단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믿

12)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願化爲人 時神遺靈艾一炷·蒜二十枚 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而不得人身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壇君王儉”

13) 단군신화는 『帝王韻紀』와 『應製詩註』를 비롯한 여러 문헌에 전하고 또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는데(金成煥, 2002, 「傳承의 類型」, 『高麗時代의 檀君傳承과 認識』, 景仁文化社), 『삼국유사』의 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파악된다(徐永大, 1994, 「檀君關係 文獻資料研究」, 『檀君-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 출판부, 75~76쪽).

14) 崔南善, 1928 「檀君 及其研究」; 1987, 李基白 編, 1987, 앞의 책, 14쪽; 金廷鶴, 1954, 「檀君說話와 토오테미즘」, 『歷史學報』 7, 282~283쪽; 리상호, 1962, 「단군 설화의 역사성(상)」, 『력사과학』 3; 서영대 편, 1995, 『북한학계의 단군신화 연구』, 白山資料院, 44-47쪽.

는 것이다(토테미즘). 이때 특수한 관계의 대부분은 친족관계이다. 토템의 어원은 북미 알곤킨(Algonkin) 오지브와족(Ojibwa)의 ‘오토 데만(ototeman)’으로, “그는 나의 친척이다”란 뜻이다.¹⁵⁾

단군신화에는 곰과 호랑이, 두 종류의 동물이 나온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토템을 가진 사회집단을 상정할 수 있다.¹⁶⁾ 토템의 흔적으로, 시베리아 제종족의 곰·호랑이 신화와 공통점이다. 그런데 단군신화에서 호랑이는 결국 인간이 되지 못하였다. 단군신화가 고조선 사회에서 성립·기능하였다면, 호랑이를 토템으로 한 사회집단은 부재하였거나,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다고 해석된다. 곰과 고조선 사회의 구성원도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곰-웅녀는 단군왕검의 모친이었다.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왕실과 친족관계를 형성했을 것이다. 비록 곰이 王家 혹은 왕을 배출한 사회 집단의 토템이었고, 국가형성 이후 왕족·왕실의 상징으로 중시되었을 수 있지만, 고조선 사회의 토템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군신화의 곰과 호랑이는 토템의 흔적을 보여준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를 곧장 토템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시베리아 제종족의 곰·호랑이 신화와 차이점이다.

15) 이상 토테미즘의 어원 및 연구사는 박상준, 2006, 「토테미즘의 재발견-생태학적 토테미즘에 대하여-」, 『종교문화비평』 9, 한국종교문화연구소, 55쪽 및 57-63쪽 참조.

16) 崔南善, 1928, 「檀君 及其研究」; 1987, 李基白 編, 1987, 앞의 책, 14-15쪽에서 “원시사회의 종족은 이 ‘토템’ 단체를 分子로 하여 그 2개 이상의 결합으로써 편성하는 것입니다. ‘神市’도 그 사회적 발전이 진행하여 종족의 편성으로 나아가려 하면, 차차 幾多의 ‘토템’적 기초를 요할 것인데, 熊虎는 그 대표적인 자요, 또 熊이 더욱 두르러진 것임은 후세의 가장 유력한 王族-夫餘系 諸國의 王族이 곰의 ‘토템’을 가진 듯함에서 알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인간과 자연의 대칭관계도 공통점과 아울러 차이점이 보인다. 단군신화에서 곰과 호랑이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했고, 이 중에서 곰은 사람으로 변화했다. 환웅과 혼인해 단군을 낳은 웅녀였다. 곰에서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단군신화는 시베리아 제종족의 곰·호랑이 신화의 신화소를 공유한다. 그와 같이 인간과 자연의 대칭관계를 반영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단군신화에서 그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다. 단군신화의 곰과 호랑이는 시베리아 제종족의 신화와 달리 스스로 인간으로 변할 수 없었다.

단군신화의 곰은 신(神) 환웅(桓雄)의 힘을 빌어서야 인간의 몸을 얻었다. 또한 인간으로 변신했음[웅녀]에도 더불어 혼인할 자가 없었다고 했다. 단군신화에서 인간과 곰·호랑이는 경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그러므로 단군신화의 사유체계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직접적인 교감과 소통 역시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단군신화에서 인간과 자연은 시베리아 제종족의 신화와 비교해 비대칭성이 강하다. 수렵·채집사회에서 이어져 온 대칭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지만, 대칭성보다 비대칭성이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단군신화는 비대칭적 세계관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2. 金現感虎설화와 대칭성의 흔적

단군신화가 수렵·채집사회의 토템 그리고 대칭적 세계관을 반영하지만, 그로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신라의 신화가 주목된다.

원성왕대(재위: 785~798) 郎君 金現이 밤이 깊도록 홀로 [흥륜사 탑돌이

를] 멈추지 않았는데, 한 처녀가 염불하며 따라 돌다가 서로 감응해 눈길을 보냈다. 탐돌이를 끝내자 으스스한 데로 이끌고 가서 통정하였다. 처녀가 장차 돌아가려고 하자 김현이 그를 따라갔다. 처녀가 사양했지만, [김현은] 억지로 따라갔다. 西山 기슭에 이르러서 한 초막으로 들어갔다. 할멈이 있었는데, 처녀에게 물었다. “함께 온 이는 누구인가?” 처녀가 그간의 사정을 말했다. 할멈이 말했다. “비록 좋은 일이지만 없었던 일만 못하구나.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이니 나무랄 수도 없겠구나. 은밀한 데가 숨겨라. 너희 형제가 나쁜 일을 저지름까 걱정되는구나.” [처녀는] 낭군을 데려다가 깊은 곳에 숨겼다. 잠시 후에 세 마리의 호랑이가 으르렁대면서 왔다. 사람의 말을 하였다. “집에 누린내가 나니, 허기를 달래는 데 어찌 다행이지 않겠는가?” 할멈이 처녀와 함께 꾸짖었다. “너희 코가 잘못되었구나. 어찌 미친 소리를 하는가?” 이때 하늘의 외침이 있었다. “너희는 생명을 해치는 일을 즐거움이 너무 심하다. 마땅히 죽어서 악행을 징벌해야겠다.” 세 마리의 짐승이 이를 듣고 모두 근심하는 기색을 보였다. 처녀가 말했다. “세 오빠가 만약 멀리 피해 가서 스스로 징계할 수 있다면, 제가 대신 그 벌을 받겠습니다.” 모두 기뻐하며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떨어뜨리고 달아났다. 처녀가 들어와서 낭군에게 말했다. “처음 저는 당신이 우리 집에 왕림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는 것을 사양하고 금지했습니다. 지금 이미 감출 것이 없으니, 감히 속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낭군과 비록 類가 다르지만, 하루저녁의 즐거움을 얻었으니, 義가 부부의 교분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오빠의 악행은 하늘이 이미 징증을 내셨으니, 一家의 재앙을 제가 받고자 합니다. (중략) 김현이 말했다. “사람이 사람과 교분은 彝倫의 도리입니다. 異類의 교분은 非常한 일이나, 이미 마음이 통하였으니, 참으로 天幸입니다. 어찌 짝의 죽음을 팔아서 일세의 爵祿을 요행으로 바랄 수 있겠습니까?”¹⁷⁾ (『삼국유사』 권5, 감동7 金現感虎)

17) “元聖王代有郎君金現者 夜深獨逸不息 有一處女 念佛隨逸 相感而目送之 逸畢 引入屏處通焉 女將還 現從之 女辭拒而強隨之行 至西山之麓 入一茅店 有老嫗 問女曰 附驥者何人 女陳其情 嫗曰 雖好事不如無也 然遂事不可諫也 且藏於室 恐汝弟兄之惡也 把郎而匿之與 小逸有三虎 咆哮而至 作人語曰 家

『삼국유사』에 수록된 김현감호설화(金現感虎說話)의 일부이다.¹⁸⁾ 신라 원성왕대 김현과 호랑이 처녀의 교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¹⁹⁾

김현감호설화는 흥륜사를 배경으로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불교적 색채를 띠고 있었다. 호랑이 처녀는 자신의 희생으로 승보(勝報)를 얻고자 했고, 처녀의 희생으로 등용된 김현은 호랑이 처녀를 위해 호원사(虎願寺)를 설립하고 항상 『법망경』을 강설하도록 했다고 한다.²⁰⁾ 다만 단군신화는 물론이고 김현감호설화에서도 인간과 곰·호랑이의 교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온다.

김현은 사람으로 변한 호랑이 처녀와 교감했고, 부부와 같은 인연을 맺었다. 김현은 호랑이 처녀를 베필[伉儷]이라고 하였다. 호랑이 처녀의 어머니도 할멈[老嫗]의 모습이었다. 호랑이 처녀의 형제 역시

有腥膻之氣 療飢何幸 媼與女叱曰 爾鼻之爽乎 何言之狂也 時有天唱 爾輩嗜害物命尤多 宜誅一以徵惡 三獸聞之 皆有憂色 女謂曰 三兄若能遠避而自懲 我能代受其罰 皆喜 俛首安尾而遁去 女入謂郎曰 始吾耻君子之辱臨幣族故辭禁爾 今既無隱 敢布腹心 且賤妾之於郎君 雖曰非類 得陪一夕之歡 義重結褵之好 三兄之惡天既狀之 一家之殃 予欲當之 (中略) 現曰 人交人 彘倫之道 異類而交 盖非常也 既得從容 固多天幸 何可忍賣於伉儷之死 儂倖一世之爵祿乎”

- 18) 異傳과 전승은 박미선, 2017, 「『金現感虎』 설화의 전승과 신라인의 세계관」 『역사와 현실』 106, 124-130쪽 참조.
- 19) 박미선, 2017, 앞의 논문, 134쪽에서는 남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의 구도 속에서 신화의 사유를 읽고자 했다.
- 20) 『삼국유사』 권5, 감통7 金現感虎. “女曰 郎君無有此言 今妾之壽夭蓋天命也 亦吾願也 郎君之慶也 予族之福也 國人之喜也 一死而五利備其可違乎 但爲妾創寺講眞詮資勝報則郎君之惠莫大焉 (中略) 現既登庸 創寺於西川邊号虎願寺 常講梵網經以導虎之冥遊 亦報其殺身成己之恩”

사람의 말을 하였다. 인간과 호랑이의 대칭관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보아 김현감호설화는 불교적 색채가 가미되었지만, 그 원형 내지 신화소의 일부는 시베리아 제종족의 곰·호랑이 신화와 인간과 자연의 대칭관계를 공유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김현감호설화 역시 시베리아 제종족의 곰·호랑이 신화와 차이점이 보인다.

호랑이 처녀의 말처럼 그와 김현은 유(類)가 달랐다고 하였고, 김현의 말처럼 이류(異類)의 교분은 비상(非常)한 일이었다고 하였으며, 호랑이 처녀의 세 오빠는 금수로 표현되었다[三獸]. 더욱이 결국 둘은 운명을 함께 하지 못했다. 호랑이 처녀는 세 오빠의 징벌을 대신해 희생되었다. 시베리아 제종족의 곰·호랑이 신화와 비교해서, 또 단군신화와 비교해서도 양자의 경계가 더욱 분명히 그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칭적 세계관에서 비대칭적 세계관으로 변화되어 간 양상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감호설화는 8세기 신라 사회를 배경으로 한 설화에서까지 여전히 대칭성·대칭관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주의된다. 『삼국유사』 김현감호조에 수록된 신도징(申屠澄) 설화는 물론이고,²¹⁾ 『수이전(殊異傳)』 일문(逸文) 등에서도 그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가령 신도징설화는 8세기 후반 당(唐)을 배경으로 하였는데, 그의 아내와 부모는 호랑이였다. 신도징과 함께 부부로 살다가 가족을 잃고 호랑이로 변했고, 부모를 따라 산림 속으로 사라졌다고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곰·호랑이와 관련된 신화가 비단 시베리아 제종족 및 동아시아 고대사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곰 신

21) 『삼국유사』 권5, 감통7 金現感虎.

화와 토렘은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 북부의 수렵지대를 중심으로 한 북반구에 폭넓게 분포했다. 또한 반드시 곰이 아니어도 인간과 자연의 대칭관계에 대한 사유는 다른 여러 동물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유라시아 유목지대를 중심으로 하여 유럽의 일부 지역에 분포하는 늑대인간 설화[人狼傳説]나, 아프리카 반투족의 표범인간 설화가 참고된다.²²⁾ 비록 시기와 지역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지만 그 원형은 늑대·표범과 인간의 대칭관계를 반영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단 맹수류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신화 내지 설화에는 염소와 사슴을 비롯해 각종 조류와 어류가 인간과 교감·소통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와 인간의 대칭관계를 반영한다고 이해된다.

이처럼 곰·호랑이·늑대·표범 등을 소재로 한 세계 각지의 신화·설화에서 그 대상은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그 원형적인 사유에는 인간과 자연의 대칭관계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대칭적 세계관은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단군신화와 김현감호설화 또는 그 신화소의 원형도 인간과 자연의 대칭관계를 반영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면 그와 같은 대칭관계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대칭관계에서 비대칭관계로 변화하였을까. 변화의 역사적 배경이 궁금하다.

22) 일찍이 高木敏雄, 1914, 「人狼傳説の痕跡」, 『郷土研究』 1-12, 郷土研究社 (최경선 譯, 2015, 「늑대인간 전설의 흔적」, 『인문학연구』 29,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단군신화와 金現感虎說話 그리고 人狼傳説을 비교하였다. 늑대인간 설화와 관련한 국내의 관련 연구로 다음이 참고된다. 장정해, 2005, 「중국 소수민족의 獸祖신화 비교연구-이리시조 신화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 17 ; 최혜영, 2005, 「고대 로마와 동북아시아 신화 분석: 늑대와 새-건국신화 비교를 통한 고대 지중해 세계와 동북아시아의 문명 교류의 가능성」, 『지중해지역연구』 7-1.

3. 권력의 신화로, 대칭성의 붕괴

단군신화의 꿈은 신 환웅의 힘으로 인간의 몸을 얻었다. 단군신화에서 환인·환웅이 주목된다.

『古記』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옛적에 桓因<帝釋을 가리킨다>의 庶子 桓雄이 있었는데 자주 天下를 생각하며 인간세계를 탐내어 구하였다. 부친이 아들의 생각을 알고 三危太伯을 내려다보니 인간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이에 [환웅에게] 天符印 3개를 주고 보내어 그를 다스리도록 하였다. [환웅은 무리 3천을 이끌고 太伯山 정상<즉 太伯으로, 지금의 妙香山이다> 神壇樹 아래로 내려와 이를 神市라고 하였다. 이를 桓雄天王이라고 한다. [환웅은] 風伯·雨師·雲師를 거느리고 곡식·생명·질병·형벌·선악을 주관하였고, 인간세계의 360여 일을 모두 주관하였다. 인간세계에 있으면서 다스리고 교화한 것이다.²³⁾ (『삼국유사』 권 1, 기이2 고조선)

환인과 환웅은 천상(天上) 신계의 존재였다. 이 중에서 환웅은 천상의 신계에서 천하(天下)의 인간세계로 내려왔다. 단군신화에서 인간과 자연의 경계는 비교적 명확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천하의 세계는 인간세계와 자연세계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세계로 내려온 환웅은 360여 일[事]을 모두 주관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곡식·생명·질병·형벌·선악’을 주관하였다고 하였다. 이때 곡식 등은 자연세계의 일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환웅이 풍

23)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 <即太伯 今妙香山>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백·우사·운사를 거느렸다고 한 사실이 주목된다.

풍백·우사·운사는 바람·비·구름의 신이었다. 환웅은 천하의 인간세계만 아니라 자연세계도 주관하였던 것이다. 비록 곰·호랑이 즉 자연세계와 인간세계는 구분되어 있었지만, 이를 모두 환웅이 주관하면서 두 세계의 교감·소통이 가능했던 것이다. 여기서 『삼국지』 동이전에 기록된 옛 부여의 습속[舊夫餘俗]이 상기된다.²⁴⁾ 옛 부여에서는 홍수나 가뭄으로 오곡이 익지 않으면 번번이 그 책임을 왕에게 돌렸다고 하였다. 옛 부여의 왕은 오곡 즉 생산을 보장해야 하는 존재였고, 그래야만 왕권의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고조선에서도 안정적인 생산은 왕의 권력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 요소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였을 때 환웅이 풍백·우사·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등 자연세계를 주관하였다고 한 것은 고조선의 왕이 그와 같은 권능을 보유한 신의 혈족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보장해 주는 존재였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²⁵⁾ 단군 신화의 환웅은 왕권의 정당성, 권위를 상징한 요소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단군신화의 대칭적 세계관이 비대칭적 세계관으로 변모한 데는 고조선 왕권의 탄생이 그 역사적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원시사회의 해체 이후 농업사회의 발전과 아울러 한층 안정적인 생산이 추구되면서, 인간은 자연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어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욕망은 신화 속의 대칭관계를 무너뜨렸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인간세계의 지배자로서 왕이 출현하면서, 왕이 인간세계만 아니라 자연세계도 주관할 수 있는 존재로, 또

24) 『삼국지』 권30, 동이선비오환30 부여. “舊夫餘俗 水旱不調 五穀不熟 輒歸咎於王 或言當易 或言當殺”

25) 서영대, 2000, 앞의 논문, 134~135쪽.

인간세계와 자연세계의 교감·소통을 독점한 혹은 그의 가장 우월한 존재로 부상했으며, 신화를 전유하였다고 파악된다. 요컨대 단군 신화의 비대칭적 세계관은 고조선 사회의 변화, 보다 구체적으로 왕권의 탄생을 반영한다고 이해된다.

김현감호설화에서도 인간세계와 천상세계가 구분되었다. 호랑이 처녀의 세 오빠에 대한 하늘의 외침[天唱]은 호랑이의 악행을 징벌했다. 비록 김현감호설화에서 하늘과 인간세계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지만, 김현과 호랑이의 처녀가 만난 곳도 흥륜사였고, 호랑이로 인한 상처의 치료제도 흥륜사의 장(醬)이었다.²⁶⁾ 흥륜사는 신라 최초의 사찰이자 대표적인 왕실사찰이었다. 하늘과 신라의 왕권이 이어져 있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호랑이 처녀의 희생은 김현의 출사(出仕)로 이어졌다. 김현과 호랑이 처녀의 인연, 그리고 세 오빠 호랑이의 악행이란 업보가 결국은 왕권을 매개로 해소된 셈이다. 김현감호설화 역시 왕권의 탄생 이후의 변화상을 담고 있다고 이해된다.

맺음말: 생태환경사상사를 위하여

대칭성·대칭관계의 개념을 차용해 단군신화와 김현감호설화를 읽고자 했다. 이를 위해 시베리아 제종족의 곰·호랑이 신화와 비교

26) 『삼국유사』 권5, 감통7 金現感虎. “虎變爲娘子熙怡而笑曰 昨夜共郎君纏纏之事惟君無忽 今日被爪傷者皆塗輿輪寺醬聆其寺之螺鉢聲則可治 乃取現所佩刀自頸而仆乃虎也 現出林而託曰 今茲虎易搏矣 匿其由不洩但依諭而治之” 사찰의 질병 치유와 관련하여서는 이현숙, 2019, 「치유 공간으로서의 한국고대 사찰-신라 흥륜사를 중심으로-」, 『신라사학보』 46 참조.

했는데, 그 속의 곰과 호랑이는 각 종족의 토텐으로 인간과 자연의 수평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신화 속에서 인간과 곰·호랑이의 경계는 확고하지 않았고, 양자의 소통에도 막힘이 없었다. 인간이 곰이었고, 곰이 인간이었다. 인간과 자연의 대칭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단군신화에서도 곰과 호랑이가 나오며, 곰은 사람으로 변화했다. 토텐과 대칭적 세계관의 흔적이었다.

그러나 단군신화의 곰, 즉 웅녀는 왕실의 조상이었다. 토텐은 아니었다. 인간과 자연의 경계도 분명한 편이었다. 단군신화의 사유체계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직접적인 교감과 소통 역시 어려웠다고 해석된다. 김현감호설화도 마찬가지였다. 인간인 김현과 호랑이 처녀의 교감이 있었지만, 양자는 이류(異類)로 경계가 더욱 분명했다. 다만 김현감호설화는 고대사회에 대칭적 세계관이 유지된 모습을 보여준다. 세계 각지의 신화로 보건대 대칭적 세계관은 보편적이었다. 단군신화와 김현감호설화 또는 그 신화소의 원형도 인간과 자연의 대칭관계를 반영하였을 것이다.

단군신화와 김현감호설화의 대칭적 세계관이 비대칭적 세계관으로 변모한 데는 왕권의 탄생이 그 역사적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인간세계의 지배자로서 왕이 출현하면서, 왕이 인간세계만 아니라 자연세계도 주관할 수 있는 존재로, 또 인간세계와 자연세계의 교감·소통을 독점한 혹은 그의 가장 우월한 존재로 부상했으며, 신화를 전유하였다. 단군신화와 같은 왕권신화가 이를 잘 보여준다. 김현감호설화도 호랑이 처녀의 희생이 김현의 출사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왕권의 탄생 이후의 변화상을 담고 있었다.

단군신화와 김현감호설화는 고조선과 신라를 배경으로 하였다. 고대사회에서 형성·기능한 신화였다. 이와 비교해 시베리아 제종족의 곰·호랑이 신화는 권력이 부재한 수렵·채집사회를 배경으로

했다. 양자의 차이점은 권력과 밀접하다고 짐작된다. 권력의 탄생과 더불어 인간과 인간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변화된 것이다. 원시사회에서 고대사회로의 전환은 세계관의 변화를 수반했다고 이해된다.

신화 속의 인간과 자연은 중세사회의 전개와 더불어 한층 비대칭성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13세기 고려의 일연(一然)은 김현감호설화의 호랑이 처녀의 인성(仁性)을 인정했지만 짐승[獸]으로 보았고, 김현과의 만남이 대성(大聖)의 감응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인간과 호랑이를 구분하고 양자의 교감과 소통을 불교의 세계관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원시·고대 사회의 대칭성을 미개사유로 보고, 합리적 세계관으로의 변화를 단순히 진보 내지 발전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대칭성이 완전히 붕괴된 오늘날 오히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오히려 원시·고대 사회의 신화와 그 속에 담긴 대칭적 세계관은 근대 문명을 반추하도록 한다. 생태환경사 연구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인간을 생태환경의 한 요소로서 객관화해 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²⁷⁾ 생태환경사의 관점에서 원시·고대 사회의 신화에 대한 보다 폭넓고 면밀한 연구가 요청된다. 생태환경사상사 연구의 가능성은 이러한 연구의 축적을 통해 타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투고일자 : 2019. 12. 10. 게재확정일자 : 2019. 12. 16.
주 제 어 : 신화, 단군신화, 김현감호설화, 대칭성, 비대칭성

27) 고태우, 2018, 「우주선 ‘지구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한국역사연구회 편, 『한국사, 한 걸음 더』, 푸른역사, 35~36쪽.